

여기서 찍으면 나도 사진작가!

한강사업본부, 박진호 작가와 함께하는 한강전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공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포토그래퍼 박진호와 함께 진행한 '아름다운 한강의 가을과 겨울' 사진 촬영 작업을 마무리하고 1월 29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재조성된 반포·독심·난지·여의도 4개 한강공원에 '사진 찍기 좋은 곳(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12월까지 약 3개월 간 한강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촬영이 서울 도심의 아름다움을 찾기 힘들어 그동안 시민들의 삶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한강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설명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한강의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을 온라인으로 먼저 감상한 후, 시민들이 한강에 직접 나와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월 29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방문하면, 한강공원 가을·겨울 사진, 촬영지점별 위치 및 각 위치에서 조망 가능한 경관과 같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다.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절별로 담은 본 작업은 가을·겨울에 이어 오는 봄,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진촬영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2월 중, 반포·여의도·난지·독심한강공원에 '사진 찍기 좋은 곳(포토존, PHOTO ZONE)'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찍기 좋은 곳' 표지판 설치의 시민들의 사진 촬영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생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자연의 명작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마치 야생 숲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이곳. 하지만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은 바로 '여의도'다.

박진호 작가는 여의도 셋강을 '수면버들의 고향'으로 표현하며, 자연이 선사하는 공간의 한적함, 그리고 즐비한 초고층 건물이 배경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초현실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울창한 버드나무숲, 토끼가 뛰어놀고 여의못에서 노니는 오리들의 모습이 더없이 한적하게 보이는 셋강의 모습은 도시속에서 살아가며 체득한 전의(戰意)를 전부 녹여버린다고 한다.

교통편, 위치 문의: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 안내센터(02-3780-0570)

파란 길, 파란 물이 끝나는 곳에서
황금빛 자연이 되살아나는 곳!
강서습지생태공원

박작가는 촬영과 함께 둘러본 강서습지생태공원에 대해 "쥬리키 시대의 밀림을 연상케 하는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촬영 내내 몸 안의 콘크리트 독을 다 쏟아내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평가하며, 꼭 전문 사진가가 아니어도 그 어느 누구라도 카메라를 메고 간다면 공원에서 나올 때는 사진가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강서습지생태공원은 구석구석 이어진 물길과 풀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사람의 발걸음이 사그라지는 곳으로 한강의 숨겨진 명소이자 보물이다.

강서안내센터를 등지고 행주대교 쪽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이국적인 원시림의 풍경을 만나게 된다.

그리곤 어느새 70년대 시골길을 걷는 듯한 아련한 향수에도 젖게 되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방화대교 쪽 조류탐사센터로 향하다 보면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한강의 겨울 철새들을 만나게 되어 오래 전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 신기함에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게 될 것이다.

1-2월은 최고의 겨울철새도래지는 명성답게 갖가지 철새를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기도 하다.

교통편, 위치 문의: 강서습지생태공원 안내센터(02-3780-0621)



저녁 노을, 갈대, 도시의 고요, 도시의 정열을 담고 싶다면
이촌·동작지구

늦가을 11월, 한강대교 노들카페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과 동작대교 구름카페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은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생동의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한강(한강대교)의 모습과 어느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뜨거운 청춘의 열정(동작대교)이 함께 보인다.

동작대교 전망타워 전망대는 한강교량에 있는 유일한 옥상 전망대로서 하루 쪽으로 떨어지는 노을과 63빌딩이 눈앞에 펼쳐져 한강에서 가장 시원하고 탁 트인 풍경을 선사하는 곳으로 박진호 작가는 도심 속 노을 촬영의 최적지로 이곳을 추천한다.



더불어, 한강대교 전망타워 또한 노을이 떨어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촌 갈대밭과 어우러진 저녁노을의 모습은 최고의 장관으로 손꼽을 수 있다.

박작가는 노을에 드리는 가을 한강공원의 갈대밭들을 전국 어느 갈대 명산 못지않은 갈대 명소로 꼽고 있다. 특히, 이촌, 광나루, 망원지구를 추천했으며, 이촌한강공원을 한강변 갈대밭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소로 강조했다. 작가는 "바쁘고 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시 쉬어 가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곳"이라고 밝히며, 이촌한강공원 갈대밭 촬영을 준비할 땐, 메모리를 여유 있게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기억의 한 편에 꼭 담아두었다가 올해 가을 가족과 함께 찾아 갈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한 장 남겨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통편, 위치 문의: 이촌한강공원 안내센터(02-3780-0551)

영화 속 한 장면에서 이제 막 옮겨 놓은 듯한 정제된 아름다움...
반포 서래섬

거대한 말발굽이 찍혀 웅덩이가 생긴 듯한, 그래서 어느 판타지 영화에서 본 듯한 10월의 모습. 근세 서양 풍경화의 배경화면을 현실로 표현해 놓은 듯한 11월의 모습. 서래섬을 담은 사진 속에서는 이렇듯 약간의 환상적인 영화 세트의 느낌을 갖게 된다.

교통편, 위치 문의: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02-3780-0541)

카메라 속 그림이 더욱 매력적인 곳! 연애를 하고 싶다면?
선유도공원



박진호 작가는 말한다. "새로 연애를 시작했다면 선유도공원에 가시라!"고. 풀과 나무 사이로 난 미로 같은 길에서 70년대 영화처럼 숨바꼭질도 해보고 싶고, 선유교를 넘어 노들길 쪽 공원을 가면 당신의 연애가 성공하는 실패하는 그 날은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박진호 작가는 연애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특히 해질 녘에 가보는 게 좋다고 추천한다.

사진 촬영도 낮 시간보다는 공원의 인공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가 절정이라고 한다.

사진을 찍었을 때 훨씬 예쁘게 나오는 선유도 공원의 조명을 적극 이용해보라는 조언과 함께.

선유도공원은 밤 12시까지 개장하므로 여유 있는 야경 촬영이 가능하다. 교통편, 위치 문의: 선유도공원 안내센터(02-3780-0590)



현대홈타운

지금 방송중....

당신의 행복드라마...

한데 곁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행복한 주인공, 아름다운 공간-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안에서 행복할 주역이 있습니다.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드라마-한데 곁에서 그 무대가 됩니다

